

증언의 문해

강민형

둥글고 볼록하게 맺혀, 그저 맺혀 있을 뿐인 증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증언을 이해할 수 있는, 혹은 없는 증언의 문해력에 대한 이야기를 적는다.

신체와 정신에 가해지는 고통을 수반하는 어느 특수한 역사를 겪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증언이라는 이름으로 적힌다. 사실 사건을 직접 겪은 사람의 숫자로만 보면 특수하다는 표현이 맞지만, 모든 역사의 생채기는 그 어떤 보편적인 고뇌와 반성을 남기기 마련이라, 더 이상 그것을 특수한 어떤 상황으로 치부하는 것이 이 쌓아 올려진 역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다.

증언은 사라질 뻔한 목소리가 곳곳이 다시 돌아와 발화하는 것이다. 어딘가에서 사라져 흔적도 알 수 없이 무덤에 묻히거나 공기 속으로 사라져버린 입술의 움직임이 불현듯 돌아와 목소리와 글이라는 매체의 형태로 힘을 가지게 된다. 우리는 이 귀환을 어디까지 볼 수 있고, 보려고 하고, 보게 되는 것일까.

‘둥글고 볼록하게 맺힌 것’은 이러한 증언들에 대한 작업이다. 그리고 이 작업을 통해 내가 질문하게 되는 것은 그 증언들이 어느 방향으로 흩어져 버리는지, 혹은 뭉쳐서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또 이 증언을 우리가 과연 이해할 수 있는가 이기도 하다. 증언의 문해력이 없다는 것은 살아 돌아온 그 목소리와 글을 또다시 무덤으로 보내는 것이 아닐까. 황제인 작가는 ‘이 증언의 더미로 또 어떤 기념비가 세워질지’ 궁금하다고 했지만, 어딘가 나는 이 증언들이 그 어떤 기념비도 세울 수 없는 상태로 미약하게 흩어져 버리는 것이 되지는 않을지, 내심 우리의 문해력을 의심했다.

주관적이고 물질적인 증거가 없다는 면에서, 때때로 개인의 증언은 바람에 가볍게 펄럭이는 종이처럼 안착하지 못한다. 마치 무덤에서 날아와 도시 어딘가에 스며들고자 하지만 그 가벼움에 다시 날아가 버리는 구슬 녹취록 한 장의 무게처럼, 그 내용의 무게와 대비된다. 때로는 소설이나 영화, 극이라고 하는 것이 실화보다 더 무거운 힘을 가지게 되는 것도 우리의 증언에 대한 문해력이 픽션의 그것보다 낮기 때문은 아닐까.

이러한 펄럭이는 증언들은 이 디지털 공간에 모여 안착을 시도한다. 이것을 현실과 가상의 논의로 가져가는 것은 이 시대 논쟁 애호가들의 한계이다. 예술계에 만연한 현실과 가상에 대한 토론은 이 증언의 문해력을 높이는데 그 어떤 연관성을 가지지 못할지도 모른다. 쉬이 비물질로 치부되는 디지털 공간에서 사라져가는 목소리와 글의 힘을 다시 물질화하려는 시도로 정리한다면 자가당착으로밖에 읽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디지털 공간이 작가가 가장 자유롭게 가공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만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 다큐멘터리에서, 대중 매체에서, 수많은 예술 작품에서 이 증언들을 다루지만, 그래도 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작가가 제어하기에 가장 용이하고 유연한 토대가 필요하며, 그것은 안타깝게도 지금의 시대에서는 디지털 공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을 부질없는 시도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한 씁쓸함이 황제인 작가와의 대화에서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나 사실 그 감정보다는 이제 우리가 증언을 끌고 여기까지 와버렸구나, 그리고 여기서 어디를 더 갈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길의 나침반처럼 여기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디지털 세계의 펄럭이는 픽셀처럼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증언들은 영어로 번역되어 베를린에서 발표되기도 한다. 식민 강대국의 언어와 탈식민주의 논의의 정점에 존재하는 베를린이라는 배경에서 우리의 증언의 맥락은 어떤 힘을 가지는가. 이 증언은 위에 말한 보편적인 역사 돌아보기의 관점에서 포섭되고 통섭 될 것인가, 혹은 역사가 한 아시아 국가에 남긴 후유증처럼 진료 기록화될 것인가. 디지털 매체와 한국/베를린의 물리적 위치가 엮이는 이 프로젝트를 현실과 가상이라는 맥락에서 볼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인터넷 커뮤니티 안에서 힘없이 외치는, 제발 현실을 살아! 같은 밈처럼 말이다.

이 사이트가 초청하는 관객은 미술관이나 역사기념관이 아닌 자신이 혼자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의 컴퓨터에서 개입을 시작한다. 어느 정도 짜여진 서사가 준비되어 있긴 하지만 기승전결의 감상보다는 손을 움직여 앞으로 나아가야만 이야기가 진행되는 이 증언들의 뭉치에서 우리의 탐사력과 문해력은 제대로 기능하는가. 아주 최소한의 자율성이 주어진 이 공간을 어떤 테스트라고 생각한다면 점수와 티어가 가관일지도 모를 일이다. 오만가지 이야기로 가득하여,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다지 없고 끊임없이 이야기로 부터 배신당하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목소리와 글 사이에서, 둥글고 불룩한 모양으로 그려져 땃혀진 증언들이 스크린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지금 증언이 우리를 본다.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그것을 본다.

강민형은 큐레이터, 연구자, 번역가(한국어, 영어, 일본어), 작가이자 광주의 독립 아티스트런 스페이스 ‘바림’(barimart.wordpress.com)의 디렉터이다. 초지역성, 탈중심화를 연구의 초점으로 삼고 있으며, 특히 새로운 기술을 통해 기존의 지역성에 얽매이지 않는 지역 예술을 실천할 수 있는 잠재성에 주목한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을 다루는 대안적인 예술 형식을 모색한 전시 〈Degital – in your hands〉를 서울 세운상가 건물에서 기획했다(degitalarts.xyz). 위스콘신 대학에서 심리학과 일본어 학사를, 도쿄예술대학에서 뉴미디어 석사를 취득했다.